

大學圖書館의 行政的 問題點

— 사람과 돈을 말함 —

金 淳 錫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여러가지 行政的 問題中 언제나 말썽이 되는 것은 「사람」과 「돈」의 問題일 것이다. 圖書館은 이 두가지 支柱가 튼튼하지 않으면 正常的 發展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더우기 大學에 있어서 「사람」과 「돈」의 問題를 度外視하고 圖書館을 經營하자는데 아 이로니가 있다.

筆者의 다루는바가 圖書館 行政問題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생각나는 대로 論文아닌 雜文을 몇줄 적어 보기로 한다.

<사 람>

첫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大學當局의 人事政策이다. 大學運營者들은 言必稱 圖書館은 大學의 心臟이요, 中心施設이라고 한다. 또한 圖書館을 가장 重要視하며 잘 理解하고 있다고들 한다. 勿論 關心이 있고 잘 理解하는 분도 있을 것이나 實地問題로 圖書館에 對한 人事行政面을 보면 그렇게 잘 理解하고 있는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圖書館人事가 너무나 姑息的이고 無定見하기 때문이다. 먼저 館 運營者인 館長 任命狀態를 보면 大部分이 教授가 兼任하게 마련인것 같다. 一般의으로 大學 學則에 “圖書館長은 教授中에서 總長이 任命한다 云云”으로 되어 있다. 도대체 圖書館運營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또는 너무 奔走해서 關心이 極히 稀薄한 分들이 圖書館을 맡아가지고는 書類에 決裁나하고 大學當局이 定해주는 與件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受動的으로 運營하기 때문에 劃期的 發展을 이룩하지 못하는것 같다. 따라서 圖書館의 核心的인 일들이 等閑視되어 合理的 運營이 不可能하게 된다. 大學當局은 모름지기 專任館長을 두어 圖書館은 圖書館人에게 맡기는 英斷을 내려야만 할것으로 믿는 바이다.

勿論 現下 우리 館界의 專門家 여러분이 年令의으로 比較的 젊으나 館務를 모르는 重鎮보다 館務를 아는 弱冠이 더 나올 것이고 他部署와의 均衡上 젊은 專門職을 館長으로 任命하기 어려우면 于先 專門職에게 館 運營全般을 一任하는 制度를 만드는 것도 한 方途가 될 것이다.

다음 館員人事도 억망인테가 있는것 같다. 大學內에서도 圖書館은 국물이 없고 일을 해도 생색이 안나고 남의 치닥거리만 하는 部署로 알려져서 一般의으로 圖書館勤務를 좋아하지 않는다. 一例를 들면 大學職員을 採用해 놓고 適當한 配置處가 없을 때 「當分間 圖書館에서 勤務하라」는 待期令(?)이 내린다. 이것이 一部 大學行政權者들의 思考方式이라는데 問題가 있다. 館員들 中에도 館務에 對한 興味를 잃고 他部署로의 榮光의 脫出(?)을 꾀하는 친구들이 있다. 他部署에서 圖書

館으로 轉屬이 되면 依例히 左遷으로 안다. “자네 어쩌다가 圖書館으로 가게 됐나? 좀 기다리면 다시 좋은데로 가게 될 걸세?” 이렇게 同僚들이 左遷을 慰撫하면 “재수가 없으니 그렇게 됐지 얼마동안 책이나 읽으며 썩고 있을 수 밖에 없네” 圖書館으로 轉屬된 친구가 對答한다. 이런 奇想天外의 人事風景도 우리 周邊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職員待期所요 流配處요 救濟機關처럼 되는 수가 있다.

新規採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專門知識이 있어야 있거나 없거나 大學 高位層의 누구라 해서 情實關係로 採用하는 일이 흔히 있고 어떤 大學에서는 圖書館職員을 公募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圖書館知識을 全然 考慮에 넣지 않고 採用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圖書館을 모르는 職員만으로 館員이 構成되면 圖書館業務는 난장판이 된다. 實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大學의 心臟을 病들게 한다. 病中에서도 不治의 病이 들게 하는 때가 있다.

圖書館資料는 文化財이며 하나의 複雜한 文明의 利器이다. 이 文明의 利器를 使用 運轉하는데 다루는 技術이 必要한 것은 勿論이다. 別로 어렵지 않은 機械를 操縱하는데도 訓練과 經驗이 必要한데 精密機械같은 圖書館業務를 訓練도 經驗도 없이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圖書館 人事政策의 拙劣로 圖書館組織도 運營도 藏書構成도 되지 않는다. 巨額을 消費해 가며 購入한 圖書가 大學圖書館 資料로서 不適하거나 分類 編目等 整理業務에 不備가 있다면 圖書館機能을 發揮할 수 없을 것은 自明한 일이다.

무슨 일이나 從事하는 「사람」에 따라 成敗에 影響이 있는 것이지만 特히 圖書館에는 「사람」에 따라 같은 與件下에서도 훌륭한 圖書館과 形便없는 圖書館으로 分類된다.

그러므로 人事行政의 合理化는 圖書館發展의 要諦가 되는 것이다.

다음 圖書館에서 골치를 앓는 것은 人員不足問題이다. 綜合大學 圖書館이라면 最少限 30名은 있어야 庶務 收書 整理 貸出 參考室 視聽覺室 書庫等에 配置할 수 있을 것이다. 筆者도 人員不足에 苦衷을 느끼는 한 사람이다. 單科大學은 그 規模에 比例하겠지만 平均 20名은 있어야 應分の 奉仕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大學當局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少數의 人員을 配當하려 들기 때문에 問題가 困難하다. 圖協에서 發行한 「韓國圖書館統計」에 依하면 몇個 大學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人員不足인 것 같다. 人員이 不足할 때 資料整理와 對外奉仕가 圓滑할 리 없고 圖書館에 따라서는 分業化조차 되지 않아 이런 일 저런 일 닦치는 대로 해야 하는 形便이다.

大學에 있어서 참으로 圖書館을 重要視한다면 사람을 쓰는데 確固한 原則이 서야만 할 것이다.

다음 館內 人和問題도 「사람」問題中の 하나이다. 大學圖書館 職員은 대체로 正規 圖書館教育을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두 部類로 構成되어 있다. 專門教育을 받은 분 보다 經驗에 依해서 圖書館業務를 習得한 분들이 더 많다.

우리나라에도 延世大와 梨花大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되면서 圖書館學이 時代의 脚光을 띠고 나타났다. 延世大에서 一年課

程의 圖書館學 教育을 實施하여 約 70名에 達하는 修了生과 四年制學部 卒業生 約 30名이 輩出된 것으로 記憶되며 梨大에서는 大學院에서 圖書館學을 한 분이 몇명 있다. 이들은 비록 法的根據는 없으나 自他가 共認하는 圖書館 專門職이며 現在 서울안에 있는 大學에 比較的 高루 配置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 問題가 있는것 같다. 圖書館 勤務經歷이 없이 一年間 訓練을 받은 분은 어엿한 專門職이오, 비록 正規教育은 받지 못했으나 여러해 勤務經歷이 있어 資料整理에 能熟한 館員은 專門職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도 首肯키 어렵다. 그런데 圖書館教育을 받은 분들은 自己비들만이 專門職인것 처럼 一種의 優越感을 가진듯이 느껴지고 圖書館教育을 못받은 분들은 오래 勤務한 經驗으로 從前의 業務組織을 一種의 傳統처럼 알고 새 方法을 排擊하는듯 하다. 이런 傾向은 뚜렷한 線을 그을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新舊 두 部類가 交代되는 陳痛期的 現象처럼 생각되며 이들은 서로 優越感和 固執을 버리고 融合 讓步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사람」問題로 한마디 더해 두고 싶은 것은 大學 學科 中心 또는 圖書館中心으로 어떤 派閥의인 것이 생기지 않나해서 憂慮된다. 우리 圖書館人들도 作黨分裂의 天才들이 사는 社會에 있어서 그들을 담을가봐 걱정이 된다. 제발 圖書館界에는 我田引水格인 獨善과 分裂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돈>

圖書館이라하면 沒理解한 關係人士들로부터 收入은 없고 消費만 하는곳 消費를 해

도 巨額을 消費하는 곳으로 白眼視되고 있는 것 같다. 事實 圖書館은 돈이 많이 드는 곳이다.

大學當局에서는 傘下에 있는 어느 大學의 하나 또는 그보다도 적은 한 部署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나 圖書館은 實로 大學 全體와 對等할만큼 무거운 比重을 갖이하고 있기 때문에 巨額의 財政的 財바침이 必要하다.

美國에서는 大學을 세우려면 圖書館부터 建築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大學을 세워놓고 圖書館이 없이 몇해고 지낼수 있으니 圖書館은 없어도 大學教育이 可能하다는 思考方式이 通하는 동안 眞正한 現代教育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 그러므로 해서 文教部 當局이 大學基準令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學生 一人當 30冊의 藏書를 두어야 한다고 要求할만도 하다. 一言而幣之하고 施設이나 藏書는 于先 「돈」이 있어야 解決되는 問題이다. 大學當局에서도 훌륭한 圖書館을 만들고 많은 藏書를 具備하는데 異議가 있을 수 없겠지만 財政的 隘路때문에 圖書館整備가 如意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圖書館 建物에 있어서는 各大學이 相當히 注力하고 있는듯 하다. 數年來 中央大 慶熙大 東國大 등이 建坪 四千坪 內외의 駑級 圖書館을 建築하였고 成均館大 漢陽大도 큰 建物을 新築하였다. 筆者가 奉職한 建國大에서도 約 2億圓을 드려서 建坪 千四百坪의 建物을 新築하였다. 이보다 앞서 建築한 高麗大 延世大 梨花大 등도 훌륭한 圖書館을 가졌고 그 밖에 여러 大學에 있어서도 建物을 新築 또는 擴張하고 있다 한다. 다만 圖書館建物로서 設計가 잘 되었느냐 하는 問題는 首肯하기 어

려운 데가 있다. 어쨌던지 圖書館建物を爲한 「돈」은 比較的 順調롭게 支出되고 있어 慶賀할 일에 屬한다.

圖書館 財政問題中 가장 발생이 되는 것은 圖書購入費다. 圖協에서 集計한 統計에 依하면 年間 圖書購入費가 二千萬圓을 넘는 圖書館이 2, 3個大學에 不過하고 그 밖에 千萬圓以上の 圖書館도 몇군데 없된다. 平均 五百萬圓에도 未達이다. 五百萬圓이라야 고작 五千圓짜리 圖書 千卷을 살 수 있는. 一年에 千卷씩 增加하면 十年에 겨우 萬卷이 增加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歲月에 大學圖書館다운 藏書構成이 되겠는가? 그래서 大學經營者들은 質보다 量的으로 藏書數를 늘이는데 汲汲하게 되었다. 文教部에서 大學基準令을 내놓고 安心하고 있는 모양이나 一部 大學에서는 基準令에 到達하기 爲하여 古本店의 잠둥산이 책을 卷當 幾百圓씩에 무더기로 購入해서 추벽에 실어다가 내동댕이를 친다. 五百萬圓으로 千卷의 良書を 購入하는 대신 二萬卷程度의 圖書가 들어오니 藏書量은 늘런지 모르지만 골탕을 먹는 것은 圖書館員뿐이다. 또 이따위 圖書는 不少한 經費와 努力을 드려 整理를 해 놓아도 閱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大學當局의 너무나 近視眼의인 處事に 啞然할 따름이다. 대체로 圖書購入費가 不足하기 때문에 基準令에 到達하려는 속셈에서 이런 彌縫策을 쓰는 것으로 解釋되나 이런일은 止揚되어야만 할 것으로 믿는다.

大學圖書館이라면 最低限 年間 三千萬圓 乃至 五千萬圓의 圖書 購入費가 必要할 것이다. 外國의 大學圖書館은 質로 莫大한 圖書費를 支出하여 年間 數萬卷의 圖書가 增加하는데 比해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圖書購入費는 平均額이 外國의 어느 大學圖書館 定刊物購入費만도 못한 實情이다. 또 圖書를 購入함에 있어서는 上

部の 아무런 壓力도 없이 圖書館에서 計劃한 範圍內에서 購入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밖에 備品費 視聽覺資料費 製本費等에 있어서도 各 圖書館의 年次 計劃에 따라 吝嗇하지 않게 支出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

다음 人件費는 「사람」問題에 屬할런지 모르나 「돈」問題로 다루어 한마디 하겠다. 外國에서는 圖書館 職員이 他職業에 比해 優待를 받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된 셈인지 圖書館人이 蔑視를 받고 있으며 報酬面에서도 一般職員과 같거나 一般職員만도 못한 待遇를 받고있는 實情이다. 日本에서는 司書에 對하여 一般職보다 優待할것을 法制化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圖書館法이 通過되어 司書의 身分이 法制化되면 待遇 問題가 論議되겠지만 于先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職務手當같은 名目으로 라도 待遇를 改善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맺 음>

「돈」과 「사람」問題는 便宜上 갈라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서로 密接한 關係에 있다. 반드시 그런것도 아닐테지만 돈이 많아야 優秀한 職員을 採用할 수 있고 「돈」이 많아야 훌륭한 施設도 갖출수 있고 돈이 많아야 圖書館資料를 豊富히 購入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일올하는 것이니 人的要素가 出衆하고 優秀하면 豫算도 얻을 수 있고 資料整理도 萬全을 期할 수 있고 運營도 圓滑히 할수 있다는 論理가 通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實情이 「사람」과 「돈」이 모두 貧困하다는데 問題의 困難性이 있다. 圖書館人이 總力을 기울여 圖書館을 보다 高次的인 位置로 끌어 올리려고 웨치고 싶은 心情에서 이글을 草했다. 글이 되지 않은것 같으나 여러분의 寬容을 빈다.

(筆者 建國大學校中央圖書館副館長)